

# 순천시, 대한민국 그린바이오 메카로 '우뚛'

## 메디앙스(주)와 산업모델 구축 업무협약 체결 선암사·옛 승주군청 치유·체험프로그램 운영

순천시가 글로벌 토탈 라이프케어 전문 기업 메디앙스(주)와 손잡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최근 청사에서 노관규 순천시장과 박수찬 메디앙스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순천시의 생태·정원 자원과 메디앙스의 고도화된 생산·연구 역량을 결합해, 지역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 모델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보령그룹에서 분리된 메디앙스는 비앤비(B&B), 닥터아로, 유피스 등 천연, 비자극 대표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으로 2025년 무역의 날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독자적인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자연유래성분 제품으로 중국 광둥 제 유아 세제부문 11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요 폭발로 매출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급증하는 수출 물량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 독보적인 친환경 생태가치와 인프라를 지닌 순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신규 생산 거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46년간 축적해 온 메디앙스의 연구 개발 역량으로 스칸게어 제품 등을 대량 생산하고, 가능성 소재와 제품 개발뿐 아니라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지역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도 확고히 다질 계획이다.

지역 농가가 참여하는 고효율 저비용의 세미스마트팜 생산단지를 국비 공모해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또 승주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선암사와 전통야생차체험관을 기업 생산시설과 연계한 치유·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광객을 끌어들이 계획이다.

옛 승주군청 일대가 넓은 삶의 틀을 깨고 그린바이오 산업과 치유가 결합된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난다. 시는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방치된 유휴 부지를 체험형 치유 거점으로 변모시켜 그린바이오 산업이 숲 속에서 어떻게 휴식과 치유로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선도적 모형을 제시할 방침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한 메디앙스와 순천시의 협력은 그린바이오 산업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며 "옛 승주군청 일대를 중심으로 생산과 연구, 치유와 관광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순전형 그린바이오 모델을 지방시대 최고의 성공사례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순천시와 메디앙스(주) 관계자들이 최근 순천시청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순천시

## 보성, 해양수산부와 수산정책 방향 모색

### 주 어종 금어기 탄력 조정 현장 애로사항 의견 청취

보성군은 최근 북재출에서 해양수산부와 전국어민회총연맹 주관으로 '2026 전국 순회 수산정책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속 가능한 수산 정책을 위해 어떤 어려움 타놓고 대화합시다'란 슬로건 아래, 어촌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의 수산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 정철수 전국어민회총연맹 회장, 보성·고흥 지역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 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수산업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어업인들은 기후 변화, 어촌 고령화 등 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수산생물 산란 시기가 변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낙지와 꽃게 등 주요 어종의



보성군은 최근 북재출에서 해양수산부와 전국어민회총연맹 주관으로 '2026 전국 순회 수산정책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보성군

법정 금어기를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어장 환경 개선을 위해 외부 업체 중심으로 추진되는 정화 사업을 어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자격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후계 어업인 육성을 위한 융자 금리를 농업 정책자금 수준으로 인하하고 상환 조건을 개선하는 등 금융 지원 확대, 고령 어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어획증명 앱 보고 절차 간소화 등 행정·금융 지원 개선 방안도 제안됐다.

패류 양식 현장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t 미만 소형 선외기의 관리선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운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장 규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지역 어업인이 마주 앉아 우리 군 수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군 차원에서 건의된 과제들이 실제 법령 개정과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어민들의 권익 보호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

## 여수, 중동사태 대응·지역 피해 최소화 노력

### 민생경제 안정 긴급 간부회의

여수시는 최근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에너지 공급망 불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민생경제 안정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여수국가산단 정유·석유화학 산업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여수국가산단 주요 기업의 원유·납사 수급 상황과 국제 유가 동향, 물류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중소기업·소상공인·농수산 분야 등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대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여수시는 석유화학 기업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



여수시는 최근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에너지 공급망 불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민생경제 안정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농·수산업 면세유 수급 상황 점검,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전남도에는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과 석유화학 산업 지원, 농·수산업 유가 부담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은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지역 산업과 민생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중동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경제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사업 추진

### 군, 32km 구간 6521억 투입...2028년 착공 목표

고흥군은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앞두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 사업은 고흥읍 호령리에서 봉래면 예내리(나로우주센터)까지 약 32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652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나로우주센터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당초 '제6차 국·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반영이 검토됐으나, 고흥군이 국도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제5차 국·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변경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 시기가 크게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올해 국비 80억원이 반영되면 예내리(나로우주센터)까지 약 32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652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구간에는 교량 21개소와 터널 4개소가 설치되며,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1공구(봉래면 예내리~동일면 덕흥리, 13.86km)와 2공구(동일면 덕흥리~고흥읍 호령리, 18.36km)로 나뉘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나로우주센터 인근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주발

사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민간 전용 우주발사장 등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이번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이 완료되면 고흥읍에서 나로우주센터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약 60분에서 20분 수준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주발사체 산업의 물류 운송체계 개선은 물론 기업 투자 유치와 관광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고홍군수는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시기를 앞당긴 만큼, 이번 사업이 고흥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여는 핵심 교통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착공과 치질 없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 광양, 섬진강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확보

### 어린 은어 4만마리 방류

광양시는 최근 다압면 섬진강 일원에서 생태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어린 은어 4만마리를 방류했다.

은어는 깨끗한 수질에서만 서식하는 대표적인 청정 어종으로, 식감이 부드럽고 비린내가 적어 여름철 별미로 인기가 높다. 또한 고부가가치 내수면 어종으로 경제적 가치도 크다.

방류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방류된 은어는 수산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지역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방류한 은어가 섬진강 생태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번식할 수 있도록 방류 수역 포획 금지 기간 설정, 오염원 근절, 어구 제한, 불법어업 단속 등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은어, 쏘가리, 동자개 등 약 498만마리의 토산 어종을 섬진강 등지에 방류하며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힘써 왔다.

광양시 관계자는 "기후 위기와 생태환경 변화에 대응해 섬진강의 건강한 생태계를 지키고 후손에게 생명력 넘치는 강을 물려주기 위해 토산 어종 방류와 생태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최근 다압면 섬진강 일원에서 생태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어린 은어 4만마리를 방류했다.

## 곡성, 생활인구 중심 신규사업·대응체계 모색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곡성군은 최근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2차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전략과 신규 사업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9개 부서에서 총 22건의 사업이 제안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소득 기반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 관광·문화산업을 통한 방문객 증대, 청년·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활력 제고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들이 제시됐다.

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안된 사업들은 향후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로 사업 간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지역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